

‘붉은 악마 원정대’ 정민영·전민성씨의 브라질 월드컵 응원기

축구로 하나된 시간... 벨기에전 상파울루서 또 한 번 “대~한민국”

월드컵은 세계 축구팬들이 4년을 기다려 맞는 축구 축제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플레이로 4년에 한번 지구촌에는 뜨거운 열정이 찾아온다.

현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뜨거웠다. 승리의 함성은 지르지 못했지만 붉은 악마 원정대는 잊지 못할 하루를 보냈다. 안타까웠던 전반전이었지만 경기장을 나온 순간 우리는 패배를 잊었다.

아쉬움보다는 따뜻한 마음이 남았다. 붉은 악마 원정대는 물론 고국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이 포르투알레그리 경기장에

‘대한민국’을 남겼다. 교포들은 대한민국을 마음껏 외치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고, 우리들은 먼길을 온 반가운 손님이라며 이것저것 물심양면으로 챙겨준 교포분들 덕에 가슴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축구’ 하나로 통한 알제리 응원단과의 만남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그들의 응원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프리카의 열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던 그들의 광적이 응원과 분위기는 월드컵의 낭만을 더해줬다.

그라운드 보다 더 뜨거웠던 관중석. 경기시간 동안 적과 적으로 응원 싸움을 벌였던 이들이지만 휘슬이 끝나고 나서는 모두가 하나였다. 인종·나라와 상관없이 축구를 사랑하는 이들이 되어 서로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며 아름다운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다.

아쉬움으로 저물었던 밤이 지나고 새로운 해가 떴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다시 집을 꾸렸다. 한국에서 브라질로 향했던 3일간의 시간. 이번에는 상파울루로 향하는 13시간의 길이었다. LTE 강국에

서 온 우리들은 통신 사정이 좋지 않은 브라질의 고속도로에서 지루함을 견뎌야 했다. 힘든 여정이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즐겁다.

실망스러웠던 점도 많았던 경기. 알제리전은 지고 말았지만 ‘태극전사’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이름이고 최선을 다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응원해줘야 하는 이들이다. 그들이 후원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기에 우리는 다시 처음처럼 똑같이 ‘태극전사’를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외칠 생각이다.



광주FC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 정민영(왼쪽)씨와 전민성씨가 지난 23일(한국시각) 오전 한국과 알제리의 경기에 앞서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있다.



양현종

믿고 쓰는 ‘좌완 듀오’ KIA 양현종·임준섭

양 “최대한 많은 이닝”·임 “규정 이닝 소화” 목표

함께 크는 ‘좌완 듀오’ 양현종과 임준섭이다.

올 시즌 양현종은 이전 없는 KIA의 에이스다. 3.51의 평균자책점으로 8승4패를 거두며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로도 우뚝 섰다. 앞선 등판에서는 넥센 이택근의 타구에 맞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7회까지 1실점으로 막으며 119구의 부상 투혼을 보여줬다.

임준섭도 시즌이 거듭 될수록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지난 잠실원정에서는 5이닝 동안 사사구 없이 두 개의 피안타만 내주는 무실점 호투를 했다. 강우콜드가 선언되면서 시즌 첫 완봉승 주인공이라는 행운의 타이틀도 얻었다. 함께 성장하고 있는 좌완 선후배다. 양현종은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임준섭은 선배를 닮고 싶어서 더 열심히 맘을 흘리고 있다.

임준섭은 “배울 게 많은 선배라서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선배다”고 양현종을 얘기했다.

양현종이 기억하는 ‘신인’ 임준섭은 옆에서 묵묵히 노력하던 후배. 입단 후 팔꿈치 수술로 재활의 시간을 보냈던 임준섭은 2년차인 지난해 처음 스프링 캠프에 참가했다. 양현종은 “캠프에서 밤에 어깨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준섭이가 많이 따라했다. 같이 운동하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보였다. 열심히 하는 모습에 챙겨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열심히 노력하는 후배 그리고 가능성이 보였기에 더 눈길을 쏟겠다는 얘기다.

양현종은 “폼도 유연하고 스피드도 오를 것 같았다.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운 것들을 알려주려고 했다. 충고를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어떤 걸 얘기해주면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좋았다”고 언급했다.

KIA의 오랜 고민이었던 좌완. 홀로 크다시피 했던 양현종이기에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도 했다.

양현종은 “나도 신인 때 시행착오가 많았다. 겪어봤으니까 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아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다. 그리고 당당한 선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하다.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준섭은 “공을 던질 때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팔이 나온다. 처음에 선배가 팔 각도를 낮추지 말고 원래 스타일 대로 가라는 말을 해줬다. 선배에게 많이 배웠지만 프로는 스스로 잘해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하고 고민하고 그러겠다. 물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겠다”고 웃었다.

두 선수의 목표는 ‘이닝’으로 똑같다. 양현종은 에이스답게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 선발 2년차 임준섭은 규정이닝 소화다. ‘함께’라서 더 든든한 두 좌완의 2014시즌이다. /김여울기자 wool@



임준섭

덕아웃 말·말·말

선 감독에게 방망이 선물 받은 박준태 “경기로 보답할게요”

▲“방망이 잘 쓰겠습니다.”

24일 SK전에 앞서 훈련을 하고 있던 외야수 박준태가 선동열 감독을 향해 “방망이를 잘 쓰겠다”며 꾸벅 인사를 했다. 선 감독의 선물 보따리가 또 풀린 것이다. 선 감독은 일본에서 직접 방망이를 공수해 종종 선수들에게 선물로 나눠주고 한다. 얼마 전에도 선수들에게 방망이를 선물했지

만 박준태는 뒤늦게 1군에 합류하면서 선물을 받지 못했다. 박준태는 선 감독이 강건 외야수로 기대를 하고 신인. 선 감독은 이날 코치를 통해 박준태에게 방망이 3자루를 안겨주었다. 박준태는 뜻밖의 선물에 “경기로 보답해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처음 1군 타석에 서본 소감은 “특별히 긴장은 하지 않았는데 엄청 빠르던데요”

였다. 박준태는 지난 20일 두산전에서 처음 배트를 들었다. 프로 첫 타석이자 첫 야간 경기. 주간 경기를 하다가 야간 경기를 하면 선수들이 느끼는 공의 속도감이 더 빠르다. 박준태는 “초구를 보고 놀라서 바로 손가락 세 개 정도 방망이를 짧게 잡았다”고 웃었다. 한편 선 감독은 또 다른 방망이를 준비하고 있다. “나도 주시라”는

이성우의 요청이 들어온 탓이다.

▲“에이 KIA 와도 5선발 쉽지 않아요.”

나지완이 독설가가 됐다. 전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동료들의 외모를 냉철하게 평가했던 나지완은 24일 덕아웃에서 윤석민(볼티모어)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윤석민도 잠 못 잤겠다. 빨리 팀으로 돌아오라고 하라”고 농담을 했다. 윤석민

은 24일 7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어깨 통증이 그 이유였다. 나지완의 독설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나지완은 능청스럽게 “KIA와도 5선발은 쉽지 않다고 전해주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독설이던 독설을 하긴 했지만 한 살 차이의 나지완과 윤석민은 각별한 사이다. 미국 진출 이후에도 영상통화를 하면서 안

부를 주고 받고 있다. 멀리서 고생하는 동생에게 오히려 장난스럽게 마음을 전했다. 윤석민은 부상자 명단에는 이름이 올랐지만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7일 이후 마운드에 복귀할 예정이다. 포투켓 레드삭스(보스턴 산하)와의 원정경기에도 선수단과 동행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TRIAISHUIMA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코팅시공
 2. 단열베이스코팅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합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